

나주SRF 손실보전방안 마련 기한 연장

민관 거버넌스, 25일 합의서 효력 상실 앞두고 11월까지 9000억 손실비용 범위·주체 진통...불발시 거센 후폭풍 예상

나주 고흥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이하 거버넌스)가 25일 기본 합의서 효력 상실을 앞두고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전 합의가 이뤄진다면, 연료 선택 등을 위한 주민 수용성 조사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최대 9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 책임을 둘러싸고 거버넌스 참여기관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0일 제20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거버넌스 참여 5개 기관은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합의 기한을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거버넌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

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5개 기관으로 이뤄졌다.

거버넌스는 이날 그동안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했던 손실보전 방안을 거버넌스 위원회로 격상해 논의하기로 했다. 수차례 실무협의회에서도 협의를 진행했는데 성과 없이 기본 합의서 효력 상실 기한이 도래했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참여기관들은 지난해 9월 26일 SRF 발전소 가동 중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당시 시민 참여형 환경 경향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보전 방안 등 문제가 된 4가지 사항에 대해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개별 부속 합의서 작성 시한을 1년으로 정했다. 기한 내 부속 합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본 합의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되, 참여기관 합의를 거쳐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보전 합의안 마련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손실 추정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국난방공사는 SRF 발전소 가동이 영구 중단될 경우 시설 매몰 비용, 발전 비용 상승에 따른 손실, 광주시와 순천·목포 등 전남지역 SRF 시설 폐쇄 비용 등 직간접 손실액이 최대 9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손실 보전 합의 불발 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난방공사는 나주시, 나주시장 등에 SRF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SRF 시설 운영 업체 일부와 일부 지자체는 나주 SRF 발전소가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합의 불발 시 관련 이해 당사자 간 소송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남은 2개월 동안 손실보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전 방안은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수소연료

전소 설치·운영 및 생산 열 난방공사 무상 공급 ▲열 요금 인상 ▲열 공급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전남도와 나주시 소유 유휴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6개 시·군 소각시설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건의(50%→70%) ▲목포·나주·순천시 SRF 생산시설 활용 등 6개 방안이다.

이민원 나주 SRF 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은 "어렵게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거버넌스 참여기관과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지은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발전소를 모두 갖췄다. 애초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거쳐 12월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진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적 기준치 이내로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7월 발표된 바 있다.

/김형석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랜선여행으로 코로나에 지친 마음 달래세요”

한류스타 이가은과 함께 목포·신안 퍼플섬 선보여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한류스타 이가은과 함께 전남 랜선 여행을 선보였다.

이번 랜선 여행은 관광거점도시인 목포와 최근 언택트(비대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안의 퍼플섬을 다뤘다.

낮과 밤 모두 아름답기로 소문난 목포의 낮에는 목포 9미(味) 중 하나인 우럭간국과 꽃게무집을 맛보고 한류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인 목포근대역사관, 영화 '1987' 촬영지인 시화마을을 방문했다.

목포의 밤에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야간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린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 고하도의 그림 같은 풍경과 목포대교의 화려한 야경을 소

거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길이(3.23km)와 최고 높이(155m)로 유명하다. 신안 편에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차로 방문할 수 있는 반월박지도를 소개했다. 이곳은 언택트(비대면), 힐링 여행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며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섬으로 퍼플섬이라 불린다.

마을 해상보행교인 퍼플대교를 건너면 마을의 지붕부터 거리까지 온통 보라색으로 뒤덮인 퍼플섬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을 어귀에는 계절마다 보라색꽃이 피어 인생 사진을 찍기에도 충분한 곳이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시대에 맞는 관광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전남 랜선 여행이 국내 여행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은 전남 랜선 여행기'는 한국어로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장터’ 품질 강화... ‘고객 불만 제로’ 도전

입점업체 대상 엄격한 품질관리

전남도가 민중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에 나서 고객 불만 제로에 나섰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증가와 친환경 꾸러미 지급 등에 힘입어 지난 4일 기준 매출액 2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 8월말 대비 7.4배가량 급성장 하면서 입점상품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남도장터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부정 유통을 비롯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제품, 구매자에게 공지하지 않

은 배송 지연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업체의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주문 폭주로 남도장터 콜센터 직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담사 연결까지 안내 멘트를 알리는 등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그동안 남도장터는 입점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써 왔으나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즉시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객 불만사항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쇼핑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생산자들의 품질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경로당 1335곳 공공 와이파이 공급

광주시가 경로당 1335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공급한다.

광주시는 23일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 시민은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선 노인들이 코로나19 등 질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용섭 시장은 "어르신들도 휴대전화로 가족, 친지, 이웃과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인 만큼 인터넷, 와이파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현장 경청의 날’ 민원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열린 제18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임택 동구청장, 이홍일 시의원, 시민권익위원 등과 함께 ‘경로당 공공와이파이(wi-fi) 설치’와 관련된 민원을 청취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개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정원 45명 승인

초대 청장 개방형 직위 검토 시청 공무원 파견...일부 직원 선발

내년 1월 개청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 윤곽이 잡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정원 등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조직 구성, 인사, 사무실 준

비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문을 연다. 정원은 청장(1~2급), 본부장(3급)을 포함해 45명으로 정해졌다.

초대 청장은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 유치, 건축 허가·공장 등록 등 자치구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업 지원, 일반 행정 등 3개 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은 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일부는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선발한다. 다른 경

제자유구역청에서는 통상 정원의 15% 안팎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공무원 배정 규정을 확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 3지구 테크노파크 인근 광주 이노비즈센터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첨단 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빛그린 국가산단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에너지 밸리 일반 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 도시 첨단 국가 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 등 광주 4개 지구, 4,37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관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 업종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잇바디돌김 9월 중순·일반김 9월 말 채묘적기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3일 "최근 3년간 해황 관측자료의 수온 변화와 기상청 장기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잇바디돌김은 9월 중순-하순, 일반 김과 모무늬돌김은 9월 말-10월 중순이 채묘적기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남해역의 9월 중순 수온 범위는 22.3~24.4도로, 지난해(21.6~25.5도) 및 평년(22.5~24.6도)보다 낮은 수온을 보여 김 채묘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품종 중 가장 먼저 양식이 시작된 잇바디돌김은 최근 장기간 강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양식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해 9월 중순 이후 실시한 것이 안정적 인 채묘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 김(방사무늬김)과 모무늬돌김의 경우 양식 어장 예찰 분석에 따른 수온 하강 추이와 기온변화, 물때 등을 고려해 해황 조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 9월 말 이후로 예측했다.

채묘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지원(목포, 진도, 해남, 완도, 장흥, 고흥)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석 기자 khh@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